

전남 바이애슬론 랍신·예카테리나, 베이징올림픽 간다

러시아 대표 출신으로 2017년 특별 귀화...한국 바이애슬론 역사 써
전남도체육회 소속 활동...동계 스포츠 불모지 전남에 활력 불어넣어

전남도체육회 소속 바이애슬론 선수 티모페이 랍신과 전남도 대표 예카테리나 에바쿠모바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다.

23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대한바이애슬론연맹은 최근 티모페이 랍신(34·전남도체육회·남자부), 예카테리나 에바쿠모바(32·석정마스크씨), 김선수(33·전북도체육회·이상 여자부) 등 3명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선수로 확정했다.

러시아 출신인 랍신과 예카테리나는 2018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한국으로 특별 귀화해 올림픽에서 2회 연속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랍신은 2008년~2016년까지 러시아 국가대표팀으로 활약했다. 월드컵 대회에서 6차례 우승을 일궈냈고 한국으로 귀화, 지난 2019년 세계선수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세계 대회 2관왕은 대한민국 최초 기록이다.

예카테리나는 러시아 청소년대표 출신이다. 2014년 그라나다 동계유니버시아드 은메달, 2015년 하계 세계선수권 혼성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귀화 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로서 5위에 올랐다. 그의 세계 대회 출전 성과는 한국 여자 바이애슬론의 역사로 통한다.

전남도체육회는 2020년 동계 종목 불모지나 다름없는 열악한 주변을 확대하고, 초·중·고·대 창단 동기부여 등 연계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바이애슬론 실업팀을 창단했다.

랍신과 예카테리나는 전남도체육회 바이애슬론 실업팀 창단멤버로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뿐만 아니라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남대표 선수로 참가할 예정이다.

전남도체육회 김재무 회장은 "전남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티모페이 랍신과 예카테리나 에바쿠모바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축하한다"며 "이들이 대한민국 바이애슬론 역사를 새로 써나가는 모습을 전남체육인들과 함께 지켜보며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랍신



예카테리나



무안고등학교 여자핸드볼선수단이 최근 창단식을 열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무안고 제공)

무안고 여자핸드볼 선수단 창단

지역 선수 연계 육성 기대

무안고등학교가 여자핸드볼선수단을 창단했다. 무안고(교장 이미향)는 최근 교직원, 선수 및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체육관에서 창단식을 열었다. 핸드볼선수단은 감독 1명과 선수 9명으로 구성됐다.

고교 여자 핸드볼팀 창단으로 무안 지역선수 연

계 육성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여자 핸드볼부는 무안초, 무안북중에만 운영돼 선수들이 진학할 수 있는 고교가 없었다.

이미향 교장은 "올해부터 대회 경험을 많이 쌓아 학생들이 큰 꿈을 펼칠길 바란다"며 "이번 창단을 통해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무안지역사회발전과 체육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3연패 '뉴'

주포 강경민 2골 그쳐

삼척시청에 24-26 패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선수단이 3연패의 늪에 빠졌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는 23일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1라운드 삼척시청전에서 24(11-17, 13-9) 26으로 패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3경기에서 내리 패해 시즌

2승4패로 5위에 머물렀다.

이날 방민서(5골), 원선필(4골), 송혜수(5골), 김지현(4골) 등 주전들이 고르게 득점했다. 하지만 강경민이 2골에 그칠 정도로 철저히 봉쇄당한 게 패인이 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반을 11-17로 뒤진 뒤 후반에 13점을 넣으며 분전했으나 2점차를 좁히지 못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1일 경남개발공사에 24-26으로 무릎을 꿇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해인의 '매혹 연기'

이해인이 지난 22일(한국시간)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4대륙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매혹적인 연기를 하고 있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선발전에서 아쉽게 탈락했던 이해인은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며 한풀이했다.

/연합뉴스

'23승 1패' KB 정규리그 1위 확정

여자농구 역대 최소 경기 기록

청주 KB가 14연승 신바람을 내며 23승 1패로 2021-2022시즌 정규리그 1위를 확정했다.

KB는 지난 22일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삼성생명 2021-2022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용인 삼성생명과의 홈 경기에서 75-69로 이겼다.

최근 14연승을 거둔 KB는 23승 1패를 기록, 남은 6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정규리그 1위를 확정했다.

24경기 만에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하는 것은 단일리그가 도입된 2007-2008시즌 이후 최소 경기 정규리그 1위 확정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2016-2017시즌 아산 우리은행의 25경기(24승 1패)였다. 다만 이때는 팀당 정규리그 경기 수가 35경기였고, 이번 시즌은 30경기로 차이가 있다.

정규리그 우승 상금 5000만원을 받은 KB는 또 구단 사상 최초로 14연승을 달성, 정규리그 1위 확정 기쁨이 두 배가 됐다. 종전 KB의 구단 최다 연승 기록은 2019년 2월의 13연승이었다.

여자농구 역대 최다 연승 기록은 신한은행이 2008-2009시즌과 2009-2010시즌에 걸쳐 달성한 23연승이다.

KB가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것은 2018-2019시즌 이후 3년 만이고, 팀 통산으로는 2002년 겨울, 2006년 여름, 2018-2019시즌에 이어 네 번째 정규리그 타이틀이다.

KB는 남은 6경기에서 다 이기면 29승 1패, 승률 96.7%로 여자프로농구 역대 정규리그 최고 승률 기록도 세울 수 있다. 현재 기록은 2016-2017시즌 우리은행이 세운 94.3%(33승 2패)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는 3월 27일에 끝나기 때문에 정규리그 종료 두 달 전에 일찌감치 1위를 확정할 KB는 정규리그 4위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러 챔피언결정전 진출 여부를 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1관 특송 |
| 2관 특송 |
| 3관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어나더 라운드, 도쿄 리벤저스 |
| 4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 5관 레지던트 이블: 라쿤시티 |
| 6관 경관의 피 |
| 9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
| 7관 세네케를 썩2계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하우스 오브 구찌 |
| 8관 세네케를 경관의 피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2022.01.04.(화)~ 29.(토)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2, 8379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모 콘서트 I 로미오와 줄리엣
일시: 2022. 01. 27.(목)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524-5086